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의 영상표현기법 분석

- 카메라기자와 VJ의 영상표현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age Expression Technique Analysis of Television News Programs

- Mainly on the Image Expression of Camera Reporter and VJ -

박덕춘

동서대학교 영상매스컴학부

Dug-Chun Park(parkdc2521@hanmail.net)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새롭게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 제작에 등장한 VJ의 영상표현상의 특성을 카메라 기자의 영상표현상의 특성과 비교 분석하고 그 차이에 대한 합의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텍스트는 2005년 7월부터 동년 12월까지 6개월간 KBS2TV를 통해 방송된 '뉴스타임' 120회분으로, 뉴스의 내용별, 취재원별 분류과정을 거쳐 샘플로 추출된 영상을 대상으로 화면의 크기, 카메라워크, 샷의 지속시간, 카메라 앵글 등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서 VJ는 사회분야, 경제분야, 문화분야를 중심으로 한 연성뉴스를 주로 취재하고, 정치분야, 건강과학분야 등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성뉴스의 취재에는 철저히 소외되고 있으며, 영상표현상의 특성으로는 VJ가 카메라기자에 비해 현장 밀착형 취재방식을 선호하여 그룹샷보다 원샷을 자주 사용하고, 기동성과 역동성 있는 카메라워크를 선호하여 팔로우잉과 줌을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며, 몰래카메라 형식의 로우앵글을 선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텔레비전 | 뉴스 | VJ | 카메라기자 | 화면의 크기 | 카메라워크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 of videojournalist's image expression techniques in the television news programs, comparing with television camera reporter's image expression techniques. Texts chosen in this thesis are 120 programs of KBS2TV 'News Time' which had been on air from July to December in 2005. Shot size, camerawork, shot duration and camera angle of the images were analysed, which had been extracted through the processes of thematic classifica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matic classification shows us that videojournalist covered mainly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news items, almost completely alienated in the fields of hard news as political and health-scientific news items which were very sensitive and influential on the life of the entire people of the na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image expression reveals that videojournalist used one-shot more often than the camera reporter, showing us videojournalist's preference of close news gathering, and videojournalist used following and zooming much more often than camera reporter, showing us videojournalist's preference of mobile and dynamic cameraworks, and videojournalist used low angles more often than camera reporter, also showing us videojournalist's preference of candid camera style news gathering.

■ keyword : | Television | News | Video Journalist | Camera Reporter | Shot Size | Camerawork |

I. 서 론

1. 연구목적

1996년 9월 교양다큐멘터리 케이블TV Q채널이 제작 방영한 ‘아시아 리포트’에서 태동한 우리나라의 VJ 프로그램은 이후 다른 케이블TV 채널들과 공중파 방송에 급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VJ 특유의 기동성과 민첩성, 그리고 친화력으로 인해 보도, 교양, 연예, 오락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저널리스트에게 카메라를 주어라, 그러면 세계 최고의 저널리즘을 얻을 것이다.”라는 마이클 로젠틀럼의 말은 촬영장비의 소형화, 고화질화와 함께 조작의 용이성으로 인해 펜으로 글을 쓰듯 일반 기자들도 6mm 디지털 캠코더로 영상저널리스트인 VJ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6mm 디지털 캠코더가 소형화, 고화질화되고, 조작법이 용이해져서 기자나 PD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누구나 VJ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언론의 사명이나 방송매체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6mm 디지털 캠코더로 촬영할 수만 있으면 모두 VJ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

‘비디오저널리스트’ 일명 ‘VJ’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영상제작자들은 이미 다큐멘터리, 시사, 연예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장르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여러 가지 유형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VJ 중에서도 KBS2TV 뉴스타임을 비롯한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소위 ‘뉴스 VJ’들이 최근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방송사가 언론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능이 보도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보도 프로그램의 중심에 뉴스 프로그램이 있고, 그 뉴스 프로그램의 제작에 VJ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이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뉴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VJ들은 저널리스트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함께, 대중 매체의 영상 제작자로서 저널리즘과 대중매체의 속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공공대중의 살아있는 목소리와 생생한 삶의 현장을 TV매체를 통해 전달하기

위해서는 방송의 공익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영상매체의 제작자로서 텔레비전 영상표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의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VJ들의 영상표현상의 특성을 방송사 카메라기자의 영상표현상의 특성과 비교, 분석하고 그 함의를 살펴보았다.

II. 이론적 고찰

1. 영상표현

워드(Ward, 1996)는 개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여러 가지 언어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개인간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인 조건은 동일한 언어로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시각매체를 사용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영상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더라도 상대방이 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따라서 영상 구도의 기본적 기능은 시청자의 관심을 끄는 것이라고 말한다[1].

시청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영상표현기법으로, 피사체의 움직임과 카메라의 움직임을 들 수 있는데, 피사체의 움직임을 표현할 때는 가능하면 카메라의 움직임을 자제하여 시청자들이 카메라의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사체의 움직임을 따라줄 때는 피사체의 속도에 맞추어 주어야 하고, 그 속도에 따라 적절한 ‘리드 룸(lead room)’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2]. 카메라의 움직임은 카메라의 헤드만 움직이는 카메라워크와 카메라 전체가 움직이는 카메라워크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카메라의 움직임은 카메라가 시청자의 눈을 대신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지나치게 자주 움직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줌’은 눈을 고정된 상태로 두면서 대상물의 크기가 연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므로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최이정(2005)은 고정샷은 카메라워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샷이며, 인간의 시청심리는 피사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고정된 화면에 나타날 때 가장 안정

감을 느낀다고 하면서, 카메라워크를 고정샷과 무빙샷으로 분류하고 고정샷은 ‘фикс샷(fix shot)’, 무빙샷은 ‘팬과 틸트(pan & tilt)’, ‘줌(zoom)’, ‘달리(dolly)’, ‘트럭(truck)’, ‘페데스탈(peDESTAL)’, ‘아크(Arc)’ 등 6가지로 분류하여 그 세부적인 움직임과 사용법 그리고 시각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3]. 박치형(2003)은 카메라워크를 ‘фикс샷(fix shot)’, ‘팬(pan)’, ‘틸트(tilt)’, ‘줌(zoom)’, ‘달리(dolly)’, ‘트랙(track)’, ‘붐(boom)’, ‘아크(arc)’ ‘팔로우잉(following)’ 등 9가지로 구분하면서 ‘фикс샷’이 가장 기본이 되는 카메라워크라고 강조한다[4]. 황인선과 한인규(1993)도 시간축상의 정지된 영상을 촬영하는 스틸카메라와는 달리, 텔레비전은 시간축상에서 연속적인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카메라의 흔들림이나 카메라의 이동을 촬영목적과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으나, 가장 기본이 되는 촬영기법은 카메라를 트라이포드에 장착하고 움직임이 없이 응시하는 것이며, 꼭 필요한 시점에만 적절한 카메라워크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5].

제틀(Zettl, 1999)에 의하면 시청자는 카메라가 보는 것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맨이 선택하는 화면은 사건의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어야 함은 물론,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야 한다. 화가들이 디테일과 색을 화면에 배열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도상의 원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카메라맨도 미학적 기준에 의한 화면의 구도를 이용해 사건을 설명하고 강조할 수 있어야 한다[6].

박치형(2003)은 피사체가 화면 속에서 나타나는 영상의 크기는 대단히 중요하며, 그 이유는 영상의 크기에 따라 그 피사체가 주는 느낌에 큰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화면의 크기를 풍경이나 정물의 경우와 인물이 포함된 경우로 나누어 분류하면서, 일반적인 풍경이나 정물의 경우 화면의 크기를 ‘롱샷(long shot)’, ‘미디엄샷(medium shot)’, ‘업샷(up shot)’ 등 3가지로 분류하였고, 인물을 중심으로 화면의 크기를 ‘빅 클로즈업(Big close up)’, ‘클로즈업(close up)’, ‘업샷(Up shot)’, ‘바스트샷(bust shot)’, ‘웨이스트샷(waist shot)’, ‘나샷(knee shot)’, ‘풀샷(full shot)’, ‘롱샷(long shot)’ 등 8가지로 분류하였다.

황인선(1998)은 카메라의 샷을 ‘관점(point of view)’에 따라서 출연자의 관점에서 피사체를 보여주는 ‘주관샷(subjective shot)’과 시청자의 관점에서 피사체를 보여주는 ‘객관샷(Objective shot)’으로 분류하고, 인물을 기준으로 ‘풀샷(full shot)’, ‘풀피겨(full figure)’, ‘나샷(knee shot)’, ‘웨이스트샷(waist shot)’, ‘바스트샷(bust shot)’, ‘업샷(up shot)’, ‘클로즈업(close up)’, ‘빅클로즈업(Big close up)’ 등 8가지로 분류하였다[7]. 그리고 Berger(1981)에 따르면, 로우앵글(Low angle)은 인물의 권위와 힘을 나타내고, 하이앵글(High angle)은 인물의 왜소함과 무력감을 나타내기 때문에 촬영에 앞서 각 샷의 목적을 충분히 파악한 후 카메라의 앵글을 결정하여야 한다[8].

2. VJ 제작시스템

일반적으로 ‘VJ제작시스템’이라 함은 한 사람이 하나의 프로그램을 기획, 취재, 구성, 촬영, 편집, 리포팅 등 프로그램의 ‘프리프로덕션(Preproduction)’, ‘프로덕션(Production)’, ‘포스트프로덕션(Postproduction)’ 등의 전체 제작과정을 맡는 소위 ‘1인 제작시스템(One-man Production System)’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비디오저널리스트’라는 용어는 크게 네 가지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첫 번째는 소형 캠코더로 취재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Producer), 두 번째는 프로그램 제작에서 조연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소형 캠코더로 보조 촬영 및 취재를 하는 AD(Assistant Director). 세 번째, 방송국과는 프로그램으로만 계약된 프리랜서 비디오저널리스트,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시청자 참여의 형태로 영상물을 제작하는 아마추어 비디오저널리스트 또는 시민단체 소속의 영상제작자를 지칭한다. 현재 국내의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VJ들은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프리랜서 비디오저널리스트들이 대부분이다[9].

안해룡(1999)은 단순한 영상자료 제공자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기자로서 리포팅까지 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비디오저널리스트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싼 인건비를 지불하고 쉽게 영상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만 주목해 비디오저널리스

트라는 개념을 축소, 왜곡하고 있는 방송가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장기간의 밀착 취재를 통해 기존 방송사에서 제작할 수 없는 고품질의 휴먼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수 있는 비디오저널리스트의 가능성을 강조한다[10].

김광옥(2001)은 VJ 제작 시스템을 '6mm 디지털 캠코더를 이용한 1인 제작시스템'이라는 용어 정의의 수준을 넘어, 이제는 '영상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형식인가?'하는 표현정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면서, VJ 프로그램의 형식은 가장 가까이에서 인물과 사건에 접근하여 사회와 역사의 단면을 그려내며, 사회감시, 고발, 시민참여, 그리고 대항문화로써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1].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기본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VJ와 카메라기자의 영상표현상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서 VJ와 카메라 기자의 취재영상의 내용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서 VJ의 영상표현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연구문제 3〉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서 카메라기자의 영상표현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연구문제 4〉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서 VJ와 카메라 기자의 영상표현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핵심은 무엇인가?

2. 연구대상 선정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방송된 KBS2TV '뉴스타임(저녁 8:00 - 8:45)' 120회분을 텍스트로 하여 사례분석을 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는 VJ가 제작한 뉴스 아이템들이 가장 많이 편성되어 방송되는 공중파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으로, 동일 프

로그램 내에서 많은 VJ와 카메라 기자의 뉴스 영상을 샘플로 채취하여 비교 분석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차 분석과정을 통해 이들 텍스트를 분류한 결과, 카메라기자의 뉴스영상 샘플 1,236개, VJ의 뉴스영상 샘플 251개를 추출하였다. 1차 분류과정에서 중계차 카메라맨이나 스튜디오 카메라맨이 촬영한 영상과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된 영상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국제, 건강과학, 스포츠 등을 포함한 모든 분야의 뉴스에서 자료 영상을 편집하여 방송한 뉴스 기사와 의 주제작 기사는 영상취재원이 불분명하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취재원이 크레딧(credit)으로 분명히 명기된 뉴스 기사만을 샘플로 추출하였으며, 통상적인 일기예보 이외의 기상뉴스는 건강과학 분야의 뉴스로 분류하였다.

<연구문제 1>을 분석하기 위해서 KBS 인터넷 홈페이지의 내용상 분류를 기준으로 6개월간의 텍스트를 분석하고, 그 내용상의 접유율에 따라서 VJ의 뉴스 기사를 20개 추출하여 <연구문제 2> VJ 영상표현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VJ의 샘플과 동일한 내용상 분류의 카메라 기자 뉴스영상을 동일한 수만큼 추출하여 <연구문제 3> 카메라기자의 영상표현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샘플링 과정에서 VJ의 영상을 모든 영역에서 골고루 추출하지 않고 접유율에 따라 추출한 것은 VJ가 텔레비전 뉴스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국제뉴스, 정치뉴스, 스포츠 뉴스 등이 VJ가 상대적으로 많이 취재하는 사회, 경제, 문화 분야 뉴스의 영상표현과 동일한 비중으로 VJ의 영상표현상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VJ의 샘플과 동일한 내용상 접유율에 따라 카메라기자의 뉴스영상을 추출한 것은 <연구문제 4>에서 VJ와 카메라기자의 영상표현을 비교할 때, 취재뉴스의 내용이 영상표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2><연구문제 3>을 분석하기 위해서 화면의 크기, 카메라워크, 샷의 지속시간, 카메라 앵글 등을 분석유목으로 선정하였다. 우선 화면의 크기 세부분석유목으로는 인체를 기준으로 '풀샷(full shot:FS)', '풀피겨(full figure:FF)', '너샷(knee shot:KS)', '웨이스트샷(waist shot:WS)', '바스트샷(bust

shot:BS)', '클로즈업(close-up:CU)', 그리고 인물의 수를 기준으로 한 화면의 크기 분석유목으로는 1S, 2S, 3S, GS, 그리고 비인물을 소재로 한 화면의 크기는 롱샷(long shot:LS), 미디엄샷(medium shot:MS), 업샷(up shot:UP) 등을 각각 선정하였다. 카메라워크의 세부 분석유목으로는 X-축 카메라워크로 '팬(pan:PN)'과 '트랙(track:TR)', Y-축 카메라 워크로 '틸트(tilt:TL)'와 '붐(boom:BM)', Z-축 카메라워크로 '줌(zoom:ZM)'과 '달리(dolly:DO)', 그리고 카메라워크의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фикс샷(fix shot:FX)' 그리고 피사체를 따라 움직이는 '팔로우잉(following:FL)' 등 8가지를 선정하였다.

샷의 지속시간은 VJ와 카메라기자의 샷의 지속시간을 각각 측정하여 총 지속시간을 샷의 수로 나누어 평균지속시간을 산출하였으며, 장면전환이 디졸브(dissolve)인 경우, 수퍼임포지션(superimposition)의 중간지점을 기준으로 전후 샷의 지속시간을 측정하였으며, 카메라의 앵글은 피사체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하이앵글, 로우앵글, 경사앵글, 수평앵글 등으로 분류하였다.

IV. 연구결과

1. 취재원별 영상의 내용분석

<연구문제 1>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서 VJ와 카메라 기자의 취재영상의 내용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뉴스스타임'을 모니터하면서 뉴스의 끝부분에 자막으로 처리되는 크레딧을 기준으로 영상취재원을 분류하였고, KBS 인터넷 홈페이지의 뉴스 내용별 분류를 기준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역, 국제, 건강과학, 스포츠 등 8개 분야로 2차 분류를 실시하였으며, 영상취재원별 내용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카메라기자의 경우 사회분야(36.2%), 지역분야(24.3%), 경제분야(13.7%), 정치분야(9.7%), 건강과학분야(6.4%)의 순으로 점유율이 나타났으며, 문화분야(5.3%), 국제분야(2.3%), 스포츠분야(2.1%)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표 1. '뉴스스타임'의 영상취재원별 내용 분석표

구분	월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역	국제	건강과학	스포츠	계
카메라기자	7	26	30	47	4	28	4	7	6	152
	8	36	27	75	16	28	7	15	12	216
	9	23	28	64	10	43	8	11	6	193
	10	15	26	79	13	46	0	9	1	189
	11	10	32	94	11	64	6	11	0	228
	12	10	26	89	12	91	3	26	1	258
소계 (%)	120	169	448	66	300	28	79	26	1,236	
	9.7	13.7	36.2	5.3	24.3	2.3	6.4	2.1	100	
VJ	7	0	5	20	3	2	3	0	0	33
	8	0	4	22	8	0	3	4	1	42
	9	1	5	21	6	3	2	1	3	42
	10	1	7	30	1	3	0	1	0	43
	11	0	9	27	3	0	3	2	2	46
	12	0	6	26	6	3	2	1	1	45
소계 (%)	2	36	146	27	11	13	9	7	251	
	0.8	14.3	58.2	10.7	4.4	5.2	3.6	2.8	100	

VJ의 경우, 사회분야(58.2%)가 압도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분야(14.3%), 문화분야(10.7%)가 비교적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고, 국제분야(5.2%), 지역분야(4.4%), 건강과학분야(3.6%), 스포츠분야(2.8%) 등은 대단히 낮은 점유율을 보였고, 특히 정치분야는 0.8%로 극히 낮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결론적으로 저널리즘에 대한 이해의 기반이 취약하며, 경성뉴스(hard news)의 취재경험이 적고, 영상취재 기법에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VJ들은 정치분야, 건강과학분야와 같은 민감하고도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뉴스에 있어서는 철저히 소외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고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회분야를 중심으로 한 연성뉴스에 집중 투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VJ의 영상표현상의 특성

<연구문제 2>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서 VJ의 영상표현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1차 분류를 통해서 추출된 VJ 뉴스 샘플 251개를 대상으로 KBS 홈페이지의 뉴스 내용별 분류를 기준으로 분석

한 <연구문제 1>의 결과, 점유율 1위에서 3위를 차지한 사회, 경제, 문화 분야의 뉴스 샘플을 점유율 비율에 최대한 균접토록, 사회분야 14개, 경제분야 3개, 문화분야 3개 등 모두 20개의 영상 샘플을 추출하여, 영상표현의 분석유목인, 화면의 크기, 카메라워크, 샷의 지속시간, 카메라 앵글 등을 세부 유목별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1][표 2-2][표 3][표 4][표 5]와 같다.

표 2-1. VJ영상의 화면의 크기(1)

구분	일반적분류				인체를 기준으로 분류				계	
	LS	MS	UP	FS	FF	KS	WS	BS		
횟수	27	57	162	73	21	27	80	24	66	537
백분률	5.0	10.6	30.2	13.6	3.9	5.0	14.9	4.5	12.3	100

표 2-2. VJ영상의 화면의 크기(2)

구분	인물의 수 기준				계
	1S	2S	3S	GS	
사용횟수	109	60	11	43	223
백분률	48.9	26.9	4.9	19.3	100

표 3. VJ영상의 카메라워크

구분	PN	TR	TL	BM	ZM	DO	FL	FX	계
횟수	78	1	33	0	42	12	19	352	537
백분률	14.5	0.2	6.2	0	7.8	2.2	3.5	65.6	100

표 4. VJ영상의 샷의 지속시간

총 샷의 수	지속시간합계(초)	평균지속시간(초)
537	1,611	3.0

표 5. VJ영상의 카메라 앵글

구분	하이앵글	로우앵글	경사앵글	수평앵글	계
샷의수	35	37	2	463	537
백분률	6.5	6.9	0.4	86.2	100

화면의 크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업샷(30.2%), 웨이스트샷(14.9%), 풀샷(13.6%) 등이 높은 점유율을 기록한 반면, 니샷(5.0%), 롱샷(5.0%), 바스트샷(4.5%), 풀피겨(3.9%) 등은 낮은 점유율을 나타냈으며, 인물의 수를 기준으로 한 분석결과에서는 원샷(48.9%), 투샷

(26.9%)이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으나, 쓰리샷(4.9%)은 낮은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카메라워크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고정된 카메라워크인 핀스샷(65.6%)과 팬(14.5%)이 높은 점유율을 나타냈으며, 팔로우잉(3.5%), 달리(2.2%), 트래킹(0.2%) 등은 대단히 낮은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블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샷의 평균 지속시간은 3.0초로 나타났고, 카메라 앵글 분석결과, 수평앵글(86.2%), 로우앵글(6.9%), 하이앵글(6.5%), 경사앵글(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 카메라기자의 영상표현상의 특성

<연구문제 3>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서 카메라기자의 영상표현에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1차 분류를 통해 추출된 카메라기자의 뉴스영상 샘플 1,236개 중에서 VJ와 동일한 분야의 뉴스를 대상으로 VJ와 동일한 20개의 샘플을 추출하여 영상표현의 분석유목인, 화면의 크기, 카메라워크, 샷의 지속시간, 카메라 앵글 등을 세부 유목별로 분석하였다. 이처럼 VJ와 동일한 분야의 카메라기자 뉴스 샘플을 추출한 것은 취재뉴스의 내용이라는 새로운 변인에 의한 영향을 배제한 상태에서 카메라기자와 VJ의 영상표현상의 특성을 비교해보기 위해서이며, 그 분석 결과는 [표 6-1][[표 6-2][표 7][표 8][표 9]와 같다.

표 6-1. 카메라기자 영상의 화면의 크기(1)

구분	일반적분류				인체를 기준으로 분류				계	
	LS	MS	UP	FS	FF	KS	WS	BS		
횟수	16	56	126	62	12	19	53	14	53	411
백분률	3.9	13.6	30.7	15.1	2.9	4.6	12.9	3.4	12.9	100

표 6-2. 카메라기자 영상의 화면의 크기(2)

구분	인물의 수 기준				계
	1S	2S	3S	GS	
횟수	52	35	8	44	139
백분률	37.4	25.2	5.8	31.6	100

표 7. 카메라기자 영상의 카메라워크

구분	PN	TR	TL	BM	ZM	DO	FL	FX	계
횟수	46	1	18	1	16	15	1	313	411
백분율	11.2	0.2	4.4	0.2	3.9	3.7	0.2	76.2	100

표 8. 카메라기자 영상의 샷의 지속시간

총 샷의 수	지속시간(합계)(초)	평균지속시간(초)
411	1,182	2.9

표 9. 카메라기자 영상의 카메라 앵글

구분	하이앵글	로우앵글	경사앵글	수평앵글	계
샷의수	56	16	0	339	411
백분율	13.6	3.9	0	82.5	100

화면의 크기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업샷(30.7%), 풀샷(15.1%), 미디엄샷(13.6%) 등이 높은 점유율을 나타낸 반면, 롱샷(3.9%), 바스트샷(3.4%), 풀피겨(2.9%) 등은 대단히 낮은 점유율을 나타내었다. 인물의 수를 기준으로 한 분석에서는 원샷(37.4%), 그룹샷(31.6%) 등이 많이 사용된 반면, 쓰리샷(5.8%)은 대단히 낮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카메라워크 분석 결과를 보면, 핵스샷(76.2%), 팬(11.2%) 등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트래킹(0.2%), 봄(0.2%), 팔로우잉(0.2%) 등은 단 한 번씩만 사용됨으로써 대단히 낮은 점유율을 기록하였다.

샷의 평균지속시간은 2.9초로 나타났으며, 카메라 앵글은 수평앵글(82.5%), 하이앵글(13.6%), 로우앵글(3.9%) 순으로 점유율을 나타냈으며, 경사앵글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 VJ와 카메라기자의 영상표현상의 특성 비교 및 함의

<연구문제 4>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서 VJ와 카메라 기자의 영상표현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함의는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유목별로 비교한 결과, 화면의 크기에 있어서는 VJ가 카메라기자에 비해 그룹샷보다 원샷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화면의 크기 세부 유목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VJ의 현장 밀착형 취재방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10-1. 화면의 크기 비교(1)

구분	일반적분류				인체를 기준으로 분류					계
	LS	MS	UP	FS	FF	KS	WS	BS	CU	
VJ	5.0	10.6	30.2	13.6	3.9	5.0	14.9	4.5	12.3	100
기자	3.9	13.6	30.7	15.1	2.9	4.6	12.9	3.4	12.9	100

표 10-2. 화면의 크기 비교(2)

구분	인물의 수 기준				계
	1S	2S	3S	GS	
VJ	48.9	26.9	4.9	19.3	100
기자	37.4	25.2	5.8	31.6	100

VJ와 카메라기자의 카메라워크를 비교한 결과 카메라기자는 팔로우잉을 단 1회(0.2%) 사용하였는데 반해, VJ는 19회 사용하여 3.5%의 점유율을 나타내었고, 카메라기자는 줌(3.9%)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데, VJ는 줌(7.8%)을 상대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핵스샷에 있어서도 카메라기자는 76.2%, VJ는 65.6%를 기록하였다. 이는 VJ의 역동적이고 기동성 있는 영상취재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표 11. 카메라워크 비교

구분	PN	TR	TL	BM	ZM	DO	FL	FX	계
VJ	14.5	0.2	6.2	0	7.8	2.2	3.5	65.6	100
기자	11.2	0.2	4.4	0.2	3.9	3.7	0.2	76.2	100

샷의 평균지속시간에 있어서는 VJ가 3.0초, 카메라기자가 2.9초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카메라 앵글에 있어서 VJ는 로우 앵글을, 카메라기자는 하이앵글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메라기자는 원거리에서 활영하는 객관적인 샷을 선호하고, VJ는 몰래 카메라 형식의 근거리 영상취재 방식을 선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12. 카메라 앵글 비교

구분	하이앵글	로우앵글	경사앵글	수평앵글	계
VJ	6.5	6.9	0.4	86.2	100
기자	13.6	3.9	0	82.5	100

V. 결 론

이 논문에서는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KBS2TV를 통해 방송된 ‘뉴스스타임’ 총 120회 분을 텍스트로 하여,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서 VJ와 카메라기자가 취재하는 뉴스의 내용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고, 그 내용상의 점유율에 따라 VJ의 뉴스 영상 샘플을 20개 추출하여 VJ의 영상표현상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VJ의 샘플과 동일한 내용상 분류의 카메라기자 취재영상을 동일한 수만큼 추출하여 카메라기자의 영상표현상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들 분석결과들을 바탕으로 VJ와 카메라기자의 영상표현상의 차이와 그 합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텔레비전 뉴스 프로그램에서 VJ는 사회분야, 경제분야, 문화분야를 중심으로 한 연성뉴스를 주로 취재하고, 정치분야, 건강과학분야 등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경성뉴스의 취재에는 철저히 소외되고 있으며, 영상표현상의 특성으로는 VJ가 카메라기자에 비해 현장 밀착형 취재방식을 선호하여 그룹샷보다 원샷을 자주 사용하고, 기동성과 역동성 있는 카메라워크를 선호하여 필로우잉과 줌을 과도하게 사용하며, 몰래카메라 형식의 카메라앵글을 선호하여 로우앵글을 자주 구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학문적으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텔레비전 뉴스의 영상취재원에 따른 표현방식의 차이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합의를 살펴보았다는 연구의 의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텔레비전 뉴스는 동영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초당 30개의 프레임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화면의 크기와 카메라의 앵글 등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매순간 변화하는 이러한 동영상의 모든 프레임을 분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카메라의 움직임이나 피사체의 움직임이 완료된 시점의 프레임을 기준으로 화면의 크기와 카메라 앵글을 분석하였다. 둘째, 카메라기자와 VJ의 영상표현상의 차이가 뉴스의 내용전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험연구로 이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의미있고 진전된 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1] P. Ward, *Picture Composition for Film and Television*, Oxford: Focal Press, 1999.
- [2] 심길중, *텔레비전 제작론*, 한울아카데미, 1996.
- [3] 최이정, *영상제작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 [4] 박치형, *ENG&캠코더*,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 [5] 황인선, 한인규, *영상제작기법*, 기다리, 1993.
- [6] H. Zettl, *Video Basics 2*, Wadsworth Publishing co, 1999.
- [7] 황인선, *프로영상제작 실무*, 미진사, 1998.
- [8] Berger, *Understanding Television*, Praeger, 1981.
- [9] 손정호, *한국 VJ프로그램의 특성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석사논문, 2003.
- [10] 안해룡, *무엇이 진정한 비디오저널리스트인가*, 제3회 비디오저널리스트 포럼, 1999.
- [11] 김광옥, *VJ 프로그램의 새로운 전개*, 방송문화, 2월호, pp.2-5, 2001.

저 자 소 개

박 덕 춘(Dug-Chun Park)



정회원

- 1987년 2월 :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공학사)
- 2001년 8월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언론학석사)
- 2004년 3월~현재 : 동서대학교 영상매스컴학부 교수

<관심분야> : 영상분석, 텔레비전, 영화, 영상미학 등